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2강 여성운동의 태동과 흐름

강사 : 박남희

1. 여성운동의 태동

◆ 북미와 유럽에서의 여성운동

※ 학습목표

북미와 유럽에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 여성운동의 태동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며 인지된 여성문제는 그 의식이 싹틔었을 뿐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단체가 결성되고 구체적인 활동이 등장해서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이 되었을까? 아쉽게도 여성들의 자발적인 결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회 외적인 요소에 의해 궁지에 몰린 여성들이 그 발단이었다. .

-북미 신대륙에 남겨진 여성

17세기 유럽인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이주한다. 신대륙에 도착한 남성들은 금광을 찾아 서부로 이동한다. 그런데 인디언이나 풍토병 자연재해의 악조건으로 가족을 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남겨진다. 남겨진 여성들이 남성이 없는 상황에서 남성의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유럽 여성의 노동운동

식민지에서 가져온 자원으로 공업이 활성화되며 영국 등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한다/ 시간이 흐르자 노동자 계급은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단결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자본가들은 궁여지책으로 노동자의 빈자리를 여성노동자로 채운다. 여성들은 모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남성들보다 월등히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자 남성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성들에게 노동운동에 같이 참여하자는 러브콜을 보낸다. 당시 남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회의가 가능했지만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여성에게는 가사 노동과 사회노동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여성의 모임은 어려웠고 남편이나 가족이 없는 여성들이 소규모로 집이나 학교 등에서 모이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남성과 힘을 합쳐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기로 하고 남성과 함께 자본가에 대항한다. 그렇게 노동자의 권리는 개선되었지만 남성이

일자리로 돌아오자 여성들은 해고당한다. 이 때 여성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가정이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정에 돌아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남성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을 주장하고 가정이 없는 여성들은 여성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장한다. 이것이 화두가 되어 여성문제가 대두된다.

▲ 북미 여성들의 사회참여

- 여성과 여성성의 분리

미국에서 남겨진 여성들은 우편업무 등 행정을 담당한다. 생계를 도맡은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바지와 부츠 등 남성들과 똑같은 복장을 입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여성과 여성성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과 젠더가 구분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문학작품화하는 여성들도 등장한다.

- 교육자가 된 여성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부여하던 교육이 여성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남성들에게 교육을 받기만 하거나 그나마도 받지 못하던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성 교육자들은 이전에 집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하던 교육에서 탈피해 양성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한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인간에 대한 물음이 등장한다.

- 여성과 종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건너온 이주자들의 종교는 유럽과 다르게 개진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신학 쪽에서 보면 유럽의 여성 신학자보다 미주의 여성신학자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유럽에서는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가톨릭이 발달한 반면 북미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여성, 예 대해 신학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 사회 속의 여성

남성들이 돌아오자 사회화가 된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조하는 여성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사업하는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고 광산에서 실질적으로 노동한다든가 학교를 세운다든가 가정에서만 있는 여성이 아니라 사회속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여성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 유럽 맑시스트 여성들의 등장 -

유럽에서 자본가가 득세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이 등장한다. 노동운동으로 목적인 바를 쟁취 . 했으나 남성들에 의해 다시 소외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 노동계층의 여성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맑시스트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의 절실함을 깨닫고 부르짖게 된다.

-여성 예측의 역사 신석기시대부터

남성들이 자본을 갖게 된 계기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석기시대에 남성들은 수렵 활동을 하며 떠돌아다니고 여성들은 정착하여 아이를 낳는다 경제권도 여성에게 있었다.

그러다 남성들은 사랑의 욕구가 확장되며 여성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적된 힘이 . 생긴 남성에게 여성은 소속된다 남성의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여성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만의 자식을 낳게 할 수 있고 정착생활로 가축과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해나가면 남성은 곧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예측의 역사가 시작된다. 더군다나 경제권을 가진 남성이 여러 여성을 소유하려고 하면서 교환법칙이 성립된다. 여성을 먹여 살리는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여성이 물적 대상이 되며 전시에는 전리품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고 종교가 생기면서 남성들은 남성을 긍정적으로 여성 을 부정적으로 하는 신화를 만든다 이전의 여신의 자리를 박탈하면서 여성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영성과 경제라는 정신적 차원과 물적 차원을 모두 차단당하면서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가 되며 남녀의 관계는 상부와 하부라는 우열관계로 바뀌게 된다.

- 경제권의 획득 우열의 전복

여성 맑시스트들은 이런 남성과 여성의 우열관계가 역사적으로 경제권을 빼앗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우열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주의 페미니즘

※ 학습목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사회로 나가자 여성 경제권의 획득

경제권을 남성으로부터 되찾아오려는 맑시스트 여성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두 부류가 등장한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해줘야 한다는 부류와 가정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부류가 그것이다 여성이 사회로 나가면 남성 . 과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현실에 부딪힌다 또한 가정에서 여성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여성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주장하는 맑시스트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가 여성의 입지를 굳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배우라고 주장한다.

▲ 사회의 교육담당

또한 맑시스트들은 교육의 문제를 여성이라는 개인에게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경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편 남성 혹은 사회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 협동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 맑시스트들은 다시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서 투쟁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한 여성성으로 남성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부딪힌다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때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주입되면서 인간사이의 정보보다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충성하는지가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사회화되면서 개인적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 여성단체의 등장

여성에게 경제권이 주어져서 사회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도층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남성, 이었고 여성들에게는 단순노동이 주어질 뿐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제도에 맑시스트들이 없힌 것뿐이라고 보았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런 사회구조의 뿌리를 송두리째 캐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단지 개선의 차원에서는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자각했다. 개혁을 위해 개인 차원이 아닌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조직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여성단체가 조직되면서 사회문제들이 단체와 교섭하는 문제로 바뀌어나간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여성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소외 차원에서 본다. 남성 중심적 사회가 여성의 소외를 낳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의 기득권을 허물고 여성을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 여성 사회화의 딜레마들

현대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인식하고 사회진출을 위해 죽어라 노력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선후배관계나 동창관계 등 청탁을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실력만 있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직장인 공직을 선호한다. 공무원 등 공직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이 많다. 그런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오히려 할당을 초과하는 수의 여성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제창했던 여성 사회화의 문제는 늘 장점과 단점을 수반한다. 교육문제도 국가에서 교육을 직접 맡는 것과 금전적인 보조를 해주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 즉 사회가 교육을 맡을 때의 문제는 아이와 마주할 시간이 적어진 부모가 관용적으로 되어서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보다는 동년배가 관계의 위주가 되면서 계층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에 금전적 보조를 해줄 때는 보조를 받으며 직접교육을 담당한 여성이 아이를 키운 후에는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 학습목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 사회에서 소외되는 여성

여성 재취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며 어머니들을 재교육시킨다. 그러나 시대를 이끄는 산업의 주축은 이미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들의 재취업자리로 국가가 원하는 직업은 단순기능직이다. 그러다보니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은 재취업을 포기하고 주부의 길을 계속 걷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다 아이들이 크면 여성들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다가 같은 처지의 여성들끼리 쇼핑을 다니고 스포츠를 즐기다 땅투기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대한민국 주부들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한국의 사회구조가 개인을 이런 구조 안에 함몰시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구조에서는 젊어서는 여성이 소외되고 늙어서는 남성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어느 시기에나 양쪽 모두 소외되지 않으려면 남녀가 파트너십을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와 개인의 문제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여성들의 주장이다.

▲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등장

사회교육이 중요해도 여성 스스로가 기존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은 프로이트와 융 라캉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에 작용하여 삶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 영아기 부모와의 관계

- 인간 의식형성의 세 단계

- 1) 영아기
- 2) 유아기
- 3) 소년기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이론가들에 의하면 의식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아기라고 한 다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어머니다. 이때 어머니를 대하는 여아와 어머니를 대하는 남아의 관계성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르게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 어머니와 남아의 관계

어머니와 남아는 친밀한 관계로 남아는 어머니와 일치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뺏기는 느낌을 받는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래서 아버지는 남아의 경쟁자 어머니를 쟁취하려는 투쟁의 상대자가 된다. 그래서 남성끼리의 관계는 투쟁하려는 성향이 형성되고 여성에 대해서는 배반감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만나서 느낀 일치감에 대한 그리움으로 언젠가 다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식이 여성에 대한 정복욕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 두 가지 의식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희구이며 하나

는 성적 대상으로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아기에 남성은 아버지로 벗어나 어머니를 찾으려고 용기 도전 자립심이 여성들보다 빨리 의식화되고 형성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이론이다.

- 어머니와 여아의 관계

여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일치감을 느낀다. 친밀감을 가지면서 육체적으로도 같기 때문 . 에 여아는 어머니와 하나라고 느낀다. 그러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 매력적인 존재다. 여아에게 아버지는 능력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비춰지고 자신이 일치감을 느꼈던 여성에 대해서는 자기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여아는 자기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으므로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생각하고 수치심을 가지며 소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남아가 어머니에게 가졌던 친밀감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분리되어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빨리 넘어가지만 여아는 어머니와 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 , 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 이런 현상은 마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덜 진화된 인간 상으로 잘못 인식되어지는 고질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여아는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있다는 죄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항상 여성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 공동 육아의 필요성

부모의 공동육아가 가능해지면 영아에게 여성성 남성성이 고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남성에게도 육아휴가가 필요하다. 육아휴가는 미시적으로 보면 노동력의 손실 사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따져보면 사회학적으로 득이 된다. 공동으로 육아하고 공동으로 일을 하면 남성과 여성의 장점이 조화를 이루며 효율성이 높아진다. 남성에게도 . 육아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 여성의 주체의식의 결여

- 라캉의 발달 단계

- 1) 영아기 - 신화기 부모와 자신이 일치
- 2) 유아기 - 거울단계
- 3) 소년기

대다수의 여성들은 유아기 단계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한다. 자신의 주체적 사고를 잘못하고 부모로부터 욕신이 떨어진 다음에 정신이 떨어진 온전한 주체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거울단계에서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나지만 실제적인 내가 아니다.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한 삶의 형태를 사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의 힘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관 주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남성들의 거울에 비춰져 반사된 가치관이다. 또한 여성이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도 남성의 가치관에 준한 경우가 많다 여성은 스스로가 얼마나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반성해볼 문제다.

◆ 실존주의 페미니즘

※ 학습목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중심으로 실존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학습한다.

▲ 실존주의 페미니즘

여성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의식을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여성은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실존주의 여성학이다 여성의 자리는 어디며 여성의 실존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성의 고유성은 무엇인가?

▲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세계대전이다 수많은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하고 반대급부로 삶의 문제도 떠오른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를 하나로 본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다 죽음이란 서글프고 어둡다 그러나 이 죽음을 선택해서 인지하는 사람들은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

이미 삶 안에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과 함께 삶이 같이 어우러져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가 된다 이 문제를 이어받은 사람은 하이데거다 죽음을 선택해서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기획투사하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때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순간순간 자기의 삶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단독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누구도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주 앞에 선 유일한 단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자기의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은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 자기 전부를 사는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삶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삶의 현실로 가져와 잘 반죽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극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생각이지만 이것은 남성들의 실존주의였다.

■참고자료

프랑스의 작가 사상가 .

사르트르 [Jean-Paul Sartre, 1905.6.21 ~ 1980.4.15.]

▲ 여성들의 실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이론을 가지고 그의 연인이었던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의 실존을 이야기한다 여성은 늘 타자였다 남성의 삶에 보조적인 수단인 타자로서의 삶만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이 타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부아르는 주장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각 분야에서 남성이 부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여성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을 주창한다.

■참고자료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실존주의 소설가 사상가 .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 1908.1.9 ~ 1986.4.14]

▲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이 타자의 자리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여성이 고유성을 부여하고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여성의 글쓰기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문학작품이나 여성영화를 들 수 있겠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기존의 가족형태가 아닌 가족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차단해버린다 그러나 이제 여성의 시각에서 이런 가족형태들을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 여성의 글쓰기

기존의 여성의 글쓰기라고 하면 사회를 다룬 남성들의 작품과는 달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다루는 수필 같은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남성의 글쓰기는 의미 있고 여성의 글쓰기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다 실존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먼저 여성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쓸 것과 여성의 글쓰기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한다 남성과 동등해지려면 남성의 관심영역에도 눈을 돌려야 하며 그동안 남성들의 영역에 관심을 너무 안 가졌기 때문에 소외당했다는 것이다 또 남성들에게는 그들이 폄하했던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글쓰기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남성의 글쓰기와 여성의 글쓰기

남성들은 보통 사회정의나 자유 같은 커다란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성들은 주로 자비 따뜻함에 대한 글쓰기를 했다 남성들은 국가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데 여성은 개인과 가족의 안위가 우선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작은 것들을 따뜻한 손길로 이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비라는 여성의 작업이 아닐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을 조율하는 역할은 어머니 여성의 몫이다 여성의 포용력과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작동되면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오히려 그것을 매장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점을 발휘할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이 폄하해놓은 여성 고유의 것을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세상으로 나가서 쓸 것을 주장한다.

◆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

※ 학습목표

성별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성별페미니즘

여성의 실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의 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면 남성의 타자에 불과하지만 본래모습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남성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주체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젠더를 활용해야 한다.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만 인정하고 . 여성들의 가치를 미미한 것으로 보았던 것을 지워버린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인간의 인성 발달단계를 개인적인 감성부터 사회정의까지 단 6계로 나누어놓고 여성은 단계까지밖에 발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성별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남성들이 인간의 전형을 만들어놓고 여성을 배제하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성의 시

선 여성의 가치관으로 여성이 말해질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성의 가치관으로 말해지는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으로 말해지는 남성이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 여성이 부여하는 여성의 가치

우리나라 근대에서 남성과 여성이 한 일을 보자 남성들은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그 때 여성들은 남겨져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남성이 한 일들만 가치 있게 여겨왔다 그러나 여성도 당시 국가의 성원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남성이 틀을 잡는다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여성인 것이다 그동안 폄하되었던 여성의 가치 성향은 다시 재평가해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남성이 부여한 가치관이 아닌 독립적인 가치관에서 볼 수 있고 말해질 수 있고 쓸 수 있고 시험되어질 수 있도록바뀌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여성과 여성의 충돌

남성과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구세대와 신세대 의 가치관이 충돌한다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에 입각해 살아온 여성의 가치관으로 살려는 여성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계층의 차이 빈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 같은 여성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여 . 성학의 고민이다.

▲ 개인의 문제는 지구적 문제

현재는 다인종 다문화 다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현상이 섞여있는 사회다 그러면서 여성이 여성에게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여성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른 여성에게 착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자아를 성취하고 해방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회 다른 문화를 배제하고 착취할 수는 없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여성학도 자신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부정하거나 무관심하다 그러나 어디까지 여성의 문제를 확장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형태가 달라진다.

▲ 에코페미니즘

여성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로 확장되고 전 지구적 페미니즘 나아가 자연과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다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을 때 여성들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성들이 그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 죽어있는 물적 자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 인간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자연 인간 혹은 자연 인간으로 보았다 그 동안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였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인간도 자연 안의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자연을 자연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해야 한다 자연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듯 자연은 자연의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하면 자연은 그것을 재해로 인간에게 돌려준다 우리가 자연에게 귀

를 기울여야 자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도구로 여겨졌던 여성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 다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자신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대등한 관계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에코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누구든 각각의 존재를 차별적 존재가 아닌 차이적 존재로 보고 개개인의 고유한 존재성을 읽어내야 스스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면 성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계층 세대 문화 인종 정치 등의 관계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 여성학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것은 남성을 넘어서려고 한다든가 여성만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려는 시도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세계 죽어버린 목소리 닫힌 마음 그런 들리지 않았던 세계에서 들리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함이다 이 차이 의 문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여성학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이 전제하는 것은 어느 한 이론이 우리 사회 전부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놓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 각자의 문제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이다.